논어 19편 자장 25장 · 원문·풀이

陳子禽謂子貢曰：「子爲恭也，仲尼豈賢於子乎？」子貢曰：「君子一言以爲知，一言以爲不知，言不可不愼也！夫子之不可及也，猶天之不可階而升也。夫子之得邦家者，所謂『立之斯立，道之斯行，綏之斯來，動之斯和。其生也榮，其死也哀』。如之何其可及也？」

독음 · 진자금위자공왈 자위공야 중니기현어자호 자공왈 군자일언이위지 일언이위부지 언불가불신야 부자지불가급야 유천지불가계이승야 부자지득방가자 소위립지사립 도지사행 수지사래 동지사화 기생야영 기사야애 여지하기가급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공은 한마디로도 지혜와 무지가 드러나니 말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. 공자가 나라를 맡으면 백성을 세우고 이끌고 편안하게 하며 조화롭게 할 것이므로 자신이 미칠 수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陳 늘어놓을 진 진 / 子 아들 자 / 禽 날짐승 금 금 / 謂 고할 위 위

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爲 할 위 / 恭 공손할 공 공

也 어조사 야 / 仲 버금 중 중 / 尼 여승 니 니 / 豈 어찌 기 기

賢 어질 현 현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乎 어조사 호 / 君 임금 군

一 한 일 일 / 言 말씀 언 언 / 以 써 이 이 / 知 알 지

不 아닐 불 / 可 옳을 가 가 / 愼 삼갈 신 신 / 夫 지아비 부 부

之 갈 지 / 及 미칠 급 급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天 하늘 천 천

階 섬돌 계 계 / 而 말이을 이 / 升 되 승 승 / 得 얻을 득 득

邦 나라 방 방 / 家 집 가 가 / 者 놈 자 / 所 바 소 소

立 설 립 립 / 斯 이 사 사 / 道 길 도 도 / 行 다닐 행 행

綏 편안할 수 수 / 來 올 래 / 動 움직일 동 동 / 和 화할 화 화

其 그 기 / 生 날 생 생 / 榮 영화로울 영 영 / 死 죽을 사 사

哀 슬플 애 애 / 如 같을 여 여 / 何 어찌 하 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